

지방자치·국제

리비아 최후 결전 임박

반정부 세력, 군사위원회 수립... 전국·조직적 저항 나서
카다피 지지세력, 용병 모집·반정부 장악지역 탈환 시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지지세력과 반정부 시위대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이 전력 증강에 적극 나서면서 최후 결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정부 세력으로 넘어간 동부 도시 벤가지에서 지난주 무스타파 압델 잘릴 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부가 구성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27일(현지시각)에는 해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국가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 세력은 특히 1일 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저항 세력 구축 작업에 나서도록 시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카다피 세력에 자체적으로 맞서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에 이어 맞서 친위 세력을 동원해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도시 탈환작전에 나서는 한편 해외 용병 모집하는 등 결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정부 세력과 카다피 친위세력 간 대규모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정부 세력, 조직적 저항 나서 =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는 1일 시위대가 장악한 동부도시 벤가지에서 군

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벤가지 시민위원회 위원인 살와 부가이기는 "어제 군사위원회가 조직됐다"면서 그러나 위원들의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압델 파타 유니스 전 내무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다피 친위 세력은 밤새 자위아 탈환에 나섰다 실책했으며 반정부 세력의 고위 관계자들은 수도 트리폴리 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구에 대해 시민위원회는 트리폴리로 진군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벤가지 반정부 시위대 일부는 시민혁명으로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에 공습을 요구하고 있다.

부가가이는 시민위원회가 카다피가 트리폴리 내 근거지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리비아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

시민위원회의 이러한 바람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깜깜 없는 카다피-용병 동원 반정부 세력 공격 준비 = 카다피가 국제사회와 반정부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도 꺾이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친위세력이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할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카다피 일가의 망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우리는 리비아인이다. 또 최소한 나는 평범한 시민이고 이것은 내 조국이다. 우리는 여기에 살고 여기에서 죽는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카다피 친위세력이 멀리 리와 니제르 출신의 투아레그족 수백명을 용병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군에 대한 공세를 위해 전력 증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비아 서부 도시 진안에는 이날 카다피 친위세력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시를 장악한 반정부 세력 전체가 전투 태세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1일(현지 시각) 리비아 동부 벤가지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의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반군 중 한 명이 모자를 걸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리비아 국제사회 제재 현황. UN, 미국, 프랑스, EU, 영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제재 현황과 지도를 포함한 정보.

최인가, 혁신도시 지원 법안 발의

지방대 출신 우수인력 우선 고용 등 개정한



국회 혁신도시건설추진 국회의원모임 대표인 민주당 최인가 의원은 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정부의 약속대로 2012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2015년까지 혁신도시 지구 내에 창업 기업,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이전 공공기

관의 수도권 소재 종전 부동산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 주도적으로 하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당해 지역 지방대학 출신 우수인력을 일정비율 우선 고용토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학자금 대출 연체 대학생 신불자 검증"

박주선 의원 "정부 방치" 주장



최근 몇 년 사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이날 발표한 '대학등록금 관련 주요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학자금 대출액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 등록된 학생은 2만5366명으로, 2007년말(3785명)에 비해 6.75배 늘었다. 이 기간 학자금 대출 연체액도 1266억원에서 3046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반면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을 졸업 후 2년 후까지 유예해주는 '신용유예정보 등록유예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2009년 559명, 2010년 678명 등 1237명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2만5366명의 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부실한 제도 운영으로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영함 트리폴리 입항... 선박 3척 추가 투입

리비아에서 우리 교민 철수를 위해 투입된 청해부대 최영함이 2일 오후(현지시간) 리비아 트리폴리에 입항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리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를 철수시키기 위해 정부가 모두 3척의 선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영함은 당초 이날 중 동부 벤가지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지역별로 남아있는 교민 숫자를 고려해 행로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이나 교민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트리폴리 지역에서 철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함은 이날 새벽 벤가지 외항을 통과했으며, 리비아 정부로부터 트리폴리 입항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다. 최영함은 트리폴리에 도착해 교민들을 태운 뒤 지중해 몰타로 항할 것

로 전해졌다. 최영함의 승선 가능 인원은 승조원을 포함해 약 1000 명이며, 트리폴리에서는 교민 수송명이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미수라와 시르테, 트리폴리, 벤가지에 그리스 선박 3척을 각각 보내 현지에서 머물고 있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의 한국 인 근로자와 국내 건설사에 고용된 제3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등을 수송한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美 "대북 조건부 식량지원 가능"

미국은 1일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스티븐 보츠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 분배를 신중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필요한 수준, 다른 나라보다도 지원이 더욱 시급한지 여부, 지원한 식량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은 1일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필요한 수준, 다른 나라보다도 지원이 더욱 시급한지 여부, 지원한 식량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난실, 광주 야권연대 연석회의 제안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은 2일 4·27 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광주지역 야권연대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6·2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정치에서 한 나라당 독재를 극복하고, 광주에서 민주당 정치독점을 극복하여 양자 4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정진한국당·진보신당)과 시민·민중연정의 연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연



대의 경험을 통해 모인 소중한 성과물을 계승 발전시켜 4·27 보궐선거와 내년 당대 선거 승리를 위한 광주지역 야권연대 연석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위원장은 "야 3당 대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지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경림기자 cki@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Multiple tables listing real estate auction details including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